

여자 저고리의 디자인에 따른 피복인간공학적인 연구

정혜숙*(영남대학교 강사), 이주영(대구산업정보대 강사), 이연순(영남대 의류학과 교수)

한복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상으로서 우리 얼이 담긴 옷이지만 착용시 부위별로 보다 더 안정되고 외관이 우수한 전통 한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자 저고리를 대상으로 하여 전통적인 이미지와 형태를 가지면서 신체에 적합하고 동작도 우수한 저고리를 제안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저고리의 디자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 방법에서는 저고리 등길이, 어깨선의 위치, 깃길이와 깃나비, 소매통크기, 옆길이 곡선의 5부위에 각각 변화를 주어 한국 여성 평균 체형에 근접한 24세의 여성 패널에게 착용시키고 의류에 관한 이론 전문성을 가진 패널이 관찰하여 질의 응답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저고리 등길이에 대한 패널의 평가는 28cm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6cm, 30cm, 24cm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2. 저고리의 어깨선 위치는 진동선에서 1.75cm를 품으로 들여 나타낸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1cm, 4cm, 3cm 순으로 품으로 들여 나타났다.
3. 저고리 깃크기 평가는 깃나비가 5cm이면서 깃길이가 21.5cm인 형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cm×22cm, 4.5cm×20.5cm, 4.5cm×21cm 순으로 나타났다.
4. 저고리 소매통 크기의 평가는 소매중심이 3cm이면서 곡선이 4.3cm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4cm×4.5cm, 1cm×3.1cm, 2cm×4.2cm 순으로 나타났다.
5. 저고리의 옆길이 곡선에 대한 평가는 진종의 중심인 겨드랑이가 5cm인 것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4cm, 6cm, 3cm 순으로 나타났다.
6. 이에 위의 항목들을 종합하여 제작한 연구저고리는 등길이가 28cm, 어깨선 위치는 1.75cm, 깃크기는 5cm×21.5cm, 소매통 크기는 3cm×4.3cm, 옆길이 곡선은 5cm로써 그 형태에 따른 신체적합성에 대한 외관 관능검사 결과로 3.83의 평균값으로 나타났고, 심미성에 대한 외관 관능검사를 항목별 평균치 값으로 종합하면 4.00의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부위별 동작적합성 관능검사는 7가지 동작을 부위별 항목 평균치 결과 3.95의 우수한 저고리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 실험 결과 앞으로도 전통 저고리를 피복함에 있어 외관과 동작적합성이 좋은 저고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 연구가 요청된다.